



해군중앙법당 통해사의 일요일 법회모습. 우측 사진은 군중병 윤지운 병사.

“관세음보살~”

장엄한 불상아래 양쪽맞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들 사이 아이들이 섞여 있다. 자세히 보니 젊은 사람도 있고, 군인도 있다. 무슨 일일까?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에 위치한 해군복지근무지원단 통해사(법사 진필승)에서 10월 5일 일요일 가족법회가

열렸다. 이날 법회는 군 승진철을 맞은 기원법회로 많은 군가족과 지역주민들이 법당을 찾았다. 군법당에 이처럼 지역주민, 남녀노소가 모이는 것은 드문 일이다.

군법당 통해사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는 것은 군부대 내에 있지 않고, 주거 단지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인근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이에 있어 바로 옆 층주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기와를 얹은 작은 학교 같아 보인다.

성은정(38·신길동)씨는 “통해사에 다니지 2년 정도 됐다. 이사를 온 후 사찰에 다니고 싶었는데 마침 통해사가 집 근처에 있어 다니게 됐다. 통해사는 가까워 마음이 편

독보적이다. 66명 정원으로 5·6·7세반을 운영하는 연화유치원은 대기표를 받아 입학이 가능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연화유치원을 나온 아이들이 통해사 어린이법회와 청년법회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날 가족법회에서도 어머니와 할머니의 손을 잡은 연화유치원 아이들이 눈에 띄었다.

5살 난 딸과 함께 가족법회에 온 전양희(34·신길동)씨는 “통해사에서 부설유치원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한참을 기다려 아이를 입학시켰다. 신행생활도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으로 너무나 좋다”고 말했다. 전 씨는

해군 군수기획운영차장에서 1990년 예편한 김종갑 통해사 명예신도회장(70)은 “통해사는 다른 군법당에 비해 군불자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며 “군교회는 근무여건상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하지만 다른 사찰로 옮기지 않고 통해사에 다니며, 심지어 군 전역후에도 그대로 다니는 신도가 많다”고 자랑했다. 김종갑 명예신도회장은 이어 “이는 장교·장교가족, 하사관 등 군불자가 일반신도들과 개념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임하는 법사님들과 통해사 소임보살님들이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법회구성 자체를 다양하게 하고 법문을 다각도로 연구하는 등 법사님들의 노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통해사가 굳건히 자리하는 큰 이유는 지역불자들의 애정도 있었다. 지역불자들의 애정을 담은 보시금은 현재 연평도 등 4개 도서지역 해군법당 운영자금으로 쓰인다.

통해사는 이에 매년 지역독거어르신께 쌀을 보내는 등 받은 사랑을 회향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필승 법사는 “일반 사찰처럼 편하게 찾아줘 그저 감사할 뿐이다”며 “군시설은 보통 20~30년을 기한으로 신축하는데 통해사는 창건 28년이 돼 신축을 계획 중이다. 신축 시 지역 수요에 맞춰 유치원 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 법회·청년 법회를 연계한 지역포교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비현상이 보편화된 현대, 도심 속 군법당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춘 불교복지시설은 대중포교의 또 다른 길이였다. 軍과 民이 한데 어우러진 부처님 도량, 통해사에서 불법 흥포의 밝은 서광이 비쳤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주거단지 속 위치·부설유치원이 인기 비결 지역 독거어르신께 쌀 보내는등 받은 사랑 회향

하다. 아이들도 매주 토요일 어린이 법회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통해사가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설 연화유치원이 있기 때문이다. 연화유치원을 비롯한 해군법당 유치원은 서울 통해사를 비롯해, 진해 흥국사, 제주 해봉사, 포항 해봉사 등 4곳이다. 총 19곳인 해군법당이 육군법당에 비해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1982년 설립된 연화유치원은 지역 보육시설 역할을 도맡아 왔다. 통해사가 위치한 신길1동과 대방동은 재개발 건설이 한창으로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다. 보육시설 수요도 늘뿐 아니라, 인근 불교유치원이 없어 미취학 아이를 가진 인근 불자들에게 연화유치원의 존재는

특히 “유치원 보육교사로 장교 분 자녀도 있고, 사찰이 운영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일반유치원보다 믿음이 간다”고 강조했다.

보육교사 박미주(25)씨는 “학부모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스님, 보살님들뿐만 아니라 수요일 사병 법회 후 사병들도 아이들 돌보는 것을 도와준다. 어려서부터 불교를 접하고 불자로 성장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통해사는 해군본부 이전 후 군사병 및 군불자들이 줄어드는 아픔을 겪었다.

군중병 윤지운(21)씨는 “법회에는 10명이지만, 수요법회 참석은 30여 명 수준으로 높다. 통해사에서 법회 등 종교생활을 하면 군생활에 큰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국제불교 선덕종 법원사에서 고환을 시대 불자 가정내의 골프 유학생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필리핀 Angeles 대학교
2008년 가을학기

골프학과 불자 장학생 모집

국제불교 선덕종 법원사에서는 엔젤레스대학교 한국입학처와 자매결연을 통해 불자들을 위한 골프유학생 종단 장학생(4년간 등록금 전액)을 모집합니다. 아래와 같이 2008~2009 학년도 가을학기 입학 및 편입생(정식학과과정)을 위한 장학생을 모집하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선발분야

- 필리핀 엔젤레스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골프 전공 25명 정원
- 4년간 종단 장학생(전체 비용 중 4년간 등록금 전액)
- 기타 엔젤레스대학교의 56개 전학과(학과내용은 한국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지원생에게도 소정의 장학금(매년 1학기 등록금) 지급

2. 선발대상

- 고졸(예정자포함), 현재대학 재학생, 졸업생 하였으나 영어권 정규유학을 희망하시는 분 등

3. 지원자격

- 고졸(200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및 고교검정고시합격자 등.

4. 구비서류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국문영문 각3통(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과 검정고시 성적표), 여권용 사진 3매.

5. 접수시기

- 2008년 10월 15일 ~ 10월 25일(토)

6. 학기시작

- 2008년 11월 4일

7. 접수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구비서류 스캔하여 첨부)

8. 장학생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한국입학처 홈페이지 : www.auf.co.kr

필리핀 본교 홈페이지 : www.auf.edu.ph

♣ 상담 안내처

· 전 화 : 031)465-1080, 010-6591-0108 팩스 : 031)465-1082

· 담 당 : 국제불교 선덕종 법원사 장학사업회 사무총장 김재성

· 이메일 : bubwonsa@gmail.com

· 주 소 : (430-82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462-76 국제불교 선덕종 법원사 장학사업회

· 기타 불자 장학생 선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이메일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